

9. Palliative treatment of malignant esophagogastric junctional obstruction with antireflux valve stent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

심영목, 이호석

배경 (Background):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식도-위 연결 부위의 악성 종양의 경우 stent가 고식적인 치료 방법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. 하지만 식도-위 연결 부위의 해부학적 특성상 위-식도 역류가 일반적인 stent의 중요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.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하여 본원에서는 antireflux valve stent를 제작, 시술하고 있다. 저자 들은 식도-위 연결 부위의 악성 종양에 의한 폐쇄를 동반한 환자에서 antireflux valve stent의 임상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유용성 및 제한점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. **대상 및 방법 (Material and Method):** 본원 개원 후부터 2003. 12월 31일까지 7년간 악성 종양에 의해 식도-위 문합 부위의 폐쇄를 보인 환자 중 antireflux valve stent를 시술받은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. 연하 장애 정도는 0 ~4까지로 분류하였다.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4세 (43~ 81세)였고 악성의 주된 장소는 위장 20 예, 식도 9 예 등 이었고 이중 원발 질환의 수술 후 재발된 경우가 3예 있었다. 시술 전 연하 장애 정도는 평균 2.63 ± 1.031 이었다. 삽입한 stent의 평균 길이는 13.15 ± 3.37 cm였고 평균 직경은 18.05 ± 0.76 mm였다. 시술 후 추적 상부위장관 조영술과 임상적 증상, 시술 중 합병증과 시술 후 합병증 등을 검토하였다. 시술 전과 후의 연하 장애 정도의 비교에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다. **결과 (Result):** 전 예에서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고 합병증으로 시술 중 출혈 (1 예), 시술 후 stent의 이동 (5 예) 등이 있었다. 추적 상부위장관 조영술은 32예에서 시행하였고 시술 후 연하 장애 정도는 평균 0.91 ± 0.612 로서 시술 전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. ($p < 0.005$) 추적 상부위장관 조영술상 위-식도 역류는 2 예 (5.7%)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. **결론 (Conclusion):** 식도-위 연결 부위의 악성 폐쇄를 보인 환자에게 본원에서 제작한 antireflux valve stent를 시술한 결과 일반적인 stent와 유사한 성공률과 합병증을 보이면서 위-식도 역류증은 적게 나타났다. 대조군 분석과 위-식도 역류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보다 정확한 검사 방법, 적절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으나 저자들은 antireflux valve stent가 식도-위 연결 부위의 악성 폐쇄 환자의 연하 장애와 위-식도 역류증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